

금주의 농사메모

기 간 2022년 5월 29일 ~ 2020년 6월 4일

제 공 경상남도농업기술원

내

용

적기 모내기와 논 잡초 방제를 철저히 하고, 보리와 밀의 수확, 논 콩 파종 요령, 노지고추 웃거름 주기와 마늘 수확과 건조, 과수원 물 관리, 배 봉지 씌우기, 단감나무 가지 비틀기 등 적기 영농에 힘쓴다.

1. 벼농사

- 모낼 때 물이 깊으면 결주가 많이 발생되므로 2~3cm 정도로 얇게 물을 대어주고 모를 낸 직후부터 7~10일간은 모 키의 절반에서 3분의 2정도(5~7cm)로 물을 깊이 대주어 수분증산을 억제시킨다.
- 논 잡초(피, 물달개비, 올챙이고랭이 등)는 모내기 전과 후, 2차례 나눠 방제를 해야 하는데, 씨레질 후 모내기 5일 전에 적용약제로 1차 처리를 하고, 이앙 후 12~15일에 2차로 살포해 준다.
- 잡초는 발아 또는 출현 후에 제초제 성분을 흡수하기 때문에 제초제를 뿌린 다음에는 물을 3~5cm 깊이로 최소한 5일 이상 유지한다.
- 맞춤형 비료를 모낼 논에 줄 때는 비료 입자를 잘 섞어서 뿌려주고, 맞춤형 비료를 사용하지 않은 곳은 모낸 후 14일 경에 새끼칠거름을 살포해 준다.

2. 밭작물

- 종자용으로 사용할 보리는 수확 전에 다른 품종이나 병해충 피해 이삭 등은 제거하고, 탈곡한 보리는 건조 및 조제를 잘하여 수매하거나 저장하되, 수매용은 수분을 13% 이내로 말려서 보관한다.
- 밀은 수확시기에 따라 제분율이 차이가 나므로 이삭 팬 후 46일 수확을 권장하며, 붉은곰팡이병 등이 발생한 포장은 맑은 날 콤바인 풍구의 풍속을 최대한 높여 수확작업을 한다.
- 논 콩 재배는 이랑 또는 두둑재배를 하되 도랑배수구 및 암거배수 시설 설치로 습해를 받지 않도록 하고, 파종 깊이는 대립종 3~4cm, 소

립중 2~3cm가 적당하며 토양습도에 따라 깊이 조절이 필요하다.

3. 채 소

- 노지고추 웃거름은 생육상태에 따라 조절해서 주는데 비료성분량에 따라 N-K복합비료를 준비하고, 비가 자주 내리면 역병(疫病, 돌림 병)이 감염될 수 있으므로 지난해 역병이 많았던 포장 등은 적용약제로 관주하는 등 사전예방을 실시해야 한다.
- 마늘 수확 적기는 품종과 재배형태에 따라 다르나 잎 끝이 1/2~2/3 정도 마를 때가 수확시기이며, 수확 후 크기 또는 무게별로 100개씩 묶거나 엮어서 건조한다.
- 수확한 마늘은 주대를 3~5cm정도 남기고 절단한 후 그물망에 넣어서 출하하거나 장기 저장을 할 때는 수분함량이 65%정도가 적당하므로 바람이 잘 통하여 습하지 않는 곳에서 10월 하순까지 예비저장하고 이후에는 0~3℃의 온도가 유지되는 곳에 본 저장을 한다.
- 양파는 지상부 도복이 시작되고 1주일 전후가 수확 적기로, 도복이 시작될 때는 하루에 10a당 약 200kg씩 수량이 증가하며, 지상부가 완전히 고사되고 도복이 진행 될수록 수확량은 많아진다.

4. 과 수

- 과수원 토양수분이 부족하면 과실 자람이 불량해져 비상품과가 많아지고 생리적 낙과현상이 증가하므로 관수 시설을 이용한 주기적 관수로 수분을 충분히 공급한다.
- 사과는 6월 하순까지 마무리적과를 실시하고 수세 관리를 위해 결과지 유인, 환상박피, 환상절피 등 외과적 처리를 통해 나무의 영양생장을 최대한 억제한다.
- 배는 봉지를 씌우기 전에 병해충을 방제하고 봉지 안으로 잎이 들어가지 않게 주의하고 봉지와 열매자루를 결속할 때 너무 느슨하거나 조여지지 않도록 주의한다.
- 단감나무는 세력이 강한 도장지만 숙아낸 다음 나머지는 가지 비틀기를 하거나 수평으로 유인해서 다음 결과지로 이용을 하는데, 가지 비틀기는 장마기에 접어드는 6월 중순까지 마무리 한다.